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6, pp.161-165, November 30, 2022.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161
JCCT 2022-11-19

부모 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Parental Attachment, The Impact of Parental Involvement in Learning on a Child's Perception of The Future

정영미*

Jeong Yeong Mi*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 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각 변인들이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아동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2019년) 자료를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변수간의 상관분석을 위해 Pearson's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 관한 부모 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아동의 미래 인식의 모든 잠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명력은 '모' 신뢰감, '가정' 기반 참여, '부' 신뢰감, '모' 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아동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 하는데 있어 부모의 신뢰와 온화하고 따스한 분위기의 가정 기반 학습 참여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주요어 : 부모 애착, 학습, 부모참여, 미래, 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children's positive perceptions of the future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parental involvement in learning, and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future, and by identifying the specific influence of each variable on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future.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ere performed on data from the 12th year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2019), and Pearson's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for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xplanatory power of parental attachment to children's perception of the future and parental participation in learning.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s among all the latent variables of parental attachment, parental participation in learning, and children's future perception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the explanatory power of children's perception of the future was found in the order of 'mother' trust, 'family'-based participation, 'father' trust, and 'mother' communicat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parental trust and warm, warm participation in home-based learning were important variables in children's positive perception of the future.

Key words : Parental Attachment, Learning, Parent Involvement, Future, Perceptions

*정회원, 경남도립거창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초빙교수
접수일: 2022년 9월 22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1일

Received: September 22, 2022 / Revised: October 25, 2022
Accepted: November 1, 2022
*Corresponding Author: mongsil57@hanmail.net
Dept. of Child Care & Welfare, Gyeongnam Geochang Univ, Korea

Ⅰ. 서 론

아동기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획해야 하며 준비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1]. 특히, 먼 미래에 대해 인식하는 능력이 11, 12세에 발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미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2]. 아동이 자신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미래성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은 자신이 처해있는 현재 상황이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자신에 대한 관점이나 과거의 경험 등에 따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아동기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미래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행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3].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 아동들은 자신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인식보다는 학업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래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동의 미래 삶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속성, 부모 관련 요인, 자애개념 등과 관련이 있다 [4]. 아동기 시기에는 가족의 영향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고 부모와 아동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행복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5]. 그 중에서도 아동기의 부모 애착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고, 가족・친구・교사 등의 적응행동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애착은 한 개인이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이며 안정적 애착 관계는 아동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더불어 낯선 환경에서 불안을 극복하고 탐색할 수 있는 안전기지 역할을 한다 [7]. 또한, 부모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아동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기대한다.

아동의 미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또 다른 하나는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이다.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 진행에 있어 함께 하고 학교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8-9]. 아동에게 학교는 직업과 마찬가지로 주요 초점이며 가족 또한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와 성장과 발전을 촉진한다. 따라서 이 두 기관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 자녀 교육에 가족이 참여하는 것은 아동들의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10-11]. 즉 학습에 있어 부모의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양육 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의 미래 인식에도 중요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12].

아동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는 것은 미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아동기 시기의 미래에 대한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이에 외국의 경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래 기대와 자아존중감, 미래 기대와 학업성적 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래 인식과 관련된 연구가 드물다.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초등학생의 미래목표나 미래 시간 관점에서의 연구가 있긴 하나 가장 기본적인 인식과 관련된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미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변인들과의 관계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아동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현재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 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 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 아동 패널 12차년도(2019년) 자료로 만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아동 패널 2,150가구 중 현재 유지되고 있는 1,412여명의 표본 중 부모 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아동에 대한 미래 인식 모두에 응답한 122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구 분	내용	빈도(%)
아동성별	남	625(51.2%)
	여	595(48.8%)
아동월령	아동 평균 월령	136.43개월
부모연령	어머니 평균 연령	42.05세
	아버지 평균 연령	44.54세

2. 측정도구

1) 부모 애착

부모 애착은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애착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외감을 제외한 의사소통, 신뢰감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의 신뢰도는 .853, 모의 신뢰도는 .863이며 전체 신뢰도는 .902이다.

2)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가정 기반 참여도 10문항, 학교 기반 참여도 7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 기반 참여도 신뢰도는 .780, 학교 기반 참여도는 .863, 전체 신뢰도는 .858이다.

3) 미래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인식은 '너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니?'라는 1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5점에 가까울수록 미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측정 도구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자료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았다. 주요 변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 관한 독립변인(부모 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변인 기술통계

각 변인의 기술 통계치는 표 2와 같다. '부' 의사소통 평균은 3.536(*SD*=.782), '모' 의사소통 평균은 3.935(*SD*=.739), '부' 신뢰감 평균은 3.983(*SD*=.776), '모' 신뢰감 평균은 4.186(*SD*=.698),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에서 가정 기반 평균은 2.546(*SD*=.483), 학교 기반 평균은 2.062(*SD*=.698)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대값 2 이하, 첨도는 절대값 7 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 변인 간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jor variables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 애착	부 의사소통	3.536	.782	-.153	-.421
	모 의사소통	3.935	.739	-.508	-.081
	부 신뢰감	3.983	.776	-.526	-.271
	모 신뢰감	4.186	.698	-.694	-.047
부모 참여	가정 기반	2.546	.483	.199	-.060
	학교 기반	2.062	.698	.543	-.306
미래에 대한 인식		4.180	.745	-.592	.089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잠재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p<.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구분	1	2	3	4	5	6	7
1	1						
2	.586**	1					
3	.596**	.432**	1				
4	.330**	.555**	.600**	1			
5	.122**	.092**	.122**	.065*	1		
6	.097**	.097**	.147**	.111**	.450**	1	
7	.238**	.248**	.300**	.280**	.148**	.120**	1

(1.:부 의사소통, 2:부 신뢰감, 3:모 의사소통, 4:모 신뢰감, 5:가정 참여, 6:학교 참여, 7:아동 미래 인식)

3. 부모 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 미래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는 2.08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변수에 대한 공차 한계는 0.53-0.98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 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02-1.88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하였다. 아동의 미래에 대한 설명력은 21.7%로 유의미하였다. 하위변인을 설명력의 크기순으로 제시하면 '모' 신뢰감(β=.11, R^2=.13, $p<.01$)이 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정'기반 참여(β=.11, R^2=.12, $p<.001$), '부' 신뢰감(β=.10, R^2=.11, $p<.01$), '모' 의사소통(β=.18, R^2=.09, $p<.0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모 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and Aarental Involvement in Learning on Children's Perception of The Future

독립변인 (하위변인)		*B*	*β*	T	R^2	*F*
상수		2.17		13.32***		
부모 애착	모의사소통	.18	.18	5.192***	.09	43.53***
	모신뢰감	.12	.11	3.016**	.13	
	부신뢰감	.10	.10	3.069**	.11	
부모 참여	가정기반	.17	.11	4.076***	.12	

Ⅳ. 논 의

본 연구는 부모 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각 변인들이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 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의 모든 하위 변인이 아동의 미래 인식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아동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미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과 긍정적 관계는 아동이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관계에 기초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모 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의 하위 변인이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 의사소통, '모' 신뢰감, '부' 신뢰감, 가정 기반 학습 참여가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모' 신뢰감, 가정 기반 학습 참여, '부' 신뢰감, '모' 의사소통 순이었다. 이는 아동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잘 형성하게 되면 자신의 미래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 애착 관계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은 어머니에게서만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미래 인식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4]. 다만, '부' 의사소통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미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어머니의 역할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역할로 아동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15-16].

아동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참여에 있어서도 가정 기반 참여도만 아동의 미래 인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의 사회자본, 즉 자녀의 학습활동을 함께 한다던지, 숙제를 돕는다 던지 등 가정 기반 학습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가족이 학교 교육에 직접적인 참여하는 것보다 가정 환경에서 아동의 학습에 보다 지원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를 뒷받침만한 연구들이 많지 않고 본 연구만으로는 해석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부모 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의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신뢰감과 '모'의 의사소통, 가정 기반 학습 참여가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모의 아동에 대한 신뢰감은 서로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 주어 아동의 성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아동의 현재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 긍정적 인식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 패널 12차년도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분석함에 따라 아동의 미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 아동의 미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미래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항을 단지 한 문항만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 하는데 있어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심도 깊은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항들이 개발 되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A. L. Kim. “A Study on the Types of Perception on the Future Performance of Poor Children: Focusing on the children of the World Vision Dream Wing Club,”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 Vol. 21, No. 11, pp. 157-172, 2021. DOI :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1.157

[2] Nurmi, J. “Adolescents' orientation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interests and plans, and related attributions and affects, in the life span context,” 1991.

[3] J. G. Kim and H. Y. kim. “A Study on Adolescents' Expectation of Future: Focused 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5, No. 2, pp. 173-186, 2013. DOI : 10.6115/khea.2013.51.2.173

[4] J. M.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Social Capital of Youth,”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4, No. 2, pp. 91-103, 2007.

[5] Y. M. Jeong.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o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3, pp. 137-142, 2022.

[6] Ainsworth, M. D. S. “The bowlby-ainsworth attachment theory,”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 1, No. 3, pp. 436-438, 1978.

[7] Bretherton, I., and Munholland, K. A.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Elaborating a central construct in attachment theory,” 2008.

[8] Grover, K. A. “A validation of the family involvement questionnaire-high school version,” Minnesota State University, Mankato.

[9] Jeynes. W. H.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and urban secondary school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Urban education*, Vol. 42, No. 1, pp. 82-110. 2007.

[10] Jeynes, W. H.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to urban elementary school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Urban education*, Vol. 40, No. 3, pp. 237-269. 2005.

[11] Manz, P. H., Fantuzzo, J. W., and Power, T. J.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family involvement among urban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42, No. 6, pp. 461-475. 2004

[12] J. H. Son and A.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Self-concept, Studying Time, and Academic Achievement,”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7, No. 1, pp. 235-265. 2006. UCI : G704-000733.2006.7.1.003.

[13] H. J. Lim and C. W. Lee. “Associations between Future Goal Profiles, Future Time Perspective, and Gri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32, No. 2, pp. 119-143. 2019. DOI : 10.29096/JEE.32.2.06.

[14] Levy, K. N., Hlay, J. K., Johnson, B. N., and Witmer, C. P.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end-and-befriend stress reactions,” *Evolutionary psychological science*, Vol. 5, No. 4, pp. 426-439. 2019.

[15] S. J. Kim and H. S. Kim. “Father's Communication Style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 10, No. 2, pp. 203-222. 2011. UCI : G704-SER000003102.2011.10.2.002

[16] Lamb, M. E., Pleck, J. H., and Levine, J. A.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In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Springer, Boston, MA. pp. 229-266. 1985.